



조선후기 산송 문제의 심화와 정약용의 풍수 인식 - 『풍수집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신 재 훈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요 약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 엄청난 분량의 『여유당전서』를 집필하여 당대의 사회 현상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가 서건학의 『독례통고』를 저본으로 하여 당시의 장례 풍속인 풍수설을 비판한 저서인 『풍수집의』는 당대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면서 당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산송과 천장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저서이기도 하다.

18세기는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정착되면서 토장법이 뿌리내렸고 이로 인해 조상의 산소를 선택하고 그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풍수설에 입각한 명당설, 동기감응설 등의 묘지풍수가 유행하고 공유지 성격의墳山의 수호와 침입 문제로 인해 천장과 산송이 사회문제화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소 조영과 천장은 법적 문제로 비화하여 수많은 산송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정약용의 『풍수집의』 저술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는 『풍수집의』를 통해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정착하면서 당시 사대부에게 수용된 묘지풍수에 기반한 풍수설은 사마광, 정이천, 주희와 같은 先儒의 성리학적인 葬論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또 풍수설 수용 속에 내재된 『효경』에 대한 잘못된 합리화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당시 효도에 대한 비뚤어진 관념을 근원적 문제로 지적하였다. 결국 정약용은 풍수설에 입각한 허울뿐인 조상 묘 투쟁을 배격하면서 『주례』에 입각한 昭穆法과 族葬法을 현실적 개혁안으로 인식하고 당시 장례 풍속을 개선하려는 시도에서 『풍수집의』를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릿말

정약용은 조선 후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그가 남긴 엄청난 양의 저술은 조선 후기 당대의 관심사와 문제를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그가 살아간 18세기는 다양한 사상과 문물의 유입이 이뤄진 시기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정착된 시점에 새로운 사상과 문물의 유입은 위협요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정약용의 저술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 정약용은 18세기의 다양한 사상에 관심을 갖기도 하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예학에 관한 정약용의 관심과 저술은 특별했다. 특히 상례에 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점과 그의 예학에 대한 입장이 훈고와 고증에 입각한 매우 치밀한 분석을 특징으로 가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

『풍수집의』의 저술 역시 정약용의 이러한 성향과 연관된 바가 적지 않았다. 『풍수집의』는 정약용이 상례에 관심을 가진 만큼 예학적 측면에서 장례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의 논증 방식인 고증을 동원해 풍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약용은 『풍수집의』를 저술하면서 서건학의 『독례통고』의 「장고(葬考)」에 집성된 역대의 다양한 유학자들의 풍수론을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그 뒤에 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³⁾

그래서 『풍수집의』에 대한 연구는 서건학의 『독례통고』와 관련시켜 그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술로 이어졌다고 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또 풍수를 조선 시대의 하나의 신앙으로 보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풍수집의』에 대해 평가한 연구⁵⁾와 정약용의 풍수에 대한 시각을 조명한 연구⁶⁾ 등도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정약용의 풍수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의 『풍수집의』 저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산송 문제를 살펴보고 산송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풍수설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정약용의 풍수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저작인 『풍수집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풍수집의』에서 드러낸 그의 풍수관과 당시 사회문제인

1) 유권중, 1991, 「茶山禮學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쪽 참조.

2) 박종천, 2011, 「다산 정약용의 『讀禮通考』 연구 初探」, 『한국실학연구』 21.

3) 박종천, 위의 논문, 10쪽 참조.

4) 박종천, 2010, 「朝鮮 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20.

_____, 2011, 「다산 정약용의 『讀禮通考』 연구 初探」, 『한국실학연구』 21.

5) 이화, 2005,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기덕, 2011, 「조선의 매장문화와 풍수사상」, 『역사학연구』 44.

장례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조선후기 산송 문제의 원인과 심화 양상

1. 조선후기 풍수에 대한 사대부 계층의 인식 변화

풍수지리는 조선시대에 들어 도읍풍수에서 묘지풍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를 숭배하던 고려에서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葬法이 화장법에서 토장법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묘지풍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상장례적 특성으로 인해 조선의 장례문화가 풍수지리의 명당설과 결합하게 되었고 이는 장지 선정을 중시하는 조선의 매장문화를 만들어내는 한 요인이 되었다.⁷⁾

여기에 정자와 주자의 매장관은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에 풍수설을 수용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의 葬法은 풍수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들은 한편으로는 풍수설을 배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였다. 특히 조상이 영면하는 분묘의 길흉에 대한 시각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효와 결부되어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程子는 자신의 저서인 『二程集』의 「葬法決疑」와 「葬說」에서 “땅이 아름다운 곳은 그 신령이 편안하고 자손이 번성한다.”⁸⁾고 하면서 땅의 美惡을 중시하면서 풍수설의 동기감응설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조부모·자손은 같은 同氣로서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도 편안하고 조상이 위태로우면 자손도 위태로운 것으로 이것 역시 자연의 이치이다.”⁹⁾라고 하여 동기감응설과 유사한 취지를 나타냈다.¹⁰⁾

주자의 풍수에 대한 입장은 더욱 우호적이었다. 그는 자식들의 요절과 죽음의 원인이 풍수지리와 관련 있다고 믿었으며 직접 모친과 부인의 묘자리를 쓰기도 했고 아버지의 묘를

7) 신재훈, 2011, 「조선 전기 천릉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쪽 참조.

8) 정이천, 『二程集』, 「葬說」

“地之美者 則其神靈安 其子孫盛 若培壅其根以枝而茂 理固然矣”.

9) 정이천, 『二程集』, 「葬說」.

“然則喟謂地之美者 土色之光潤 草木之茂盛 乃其驗也”.

“父祖子孫同氣 彼安則此安 彼危則此危 亦其理也”.

10) 김기덕, 앞위의 논문, 203쪽 참조.

두 번 移葬할 정도였다. 1194년에 그는 송나라 영종에게 풍수적 논리로 가득한 자신의 저서인 『山陵議狀』을 올리면서 조상의 先塋에 나쁜 동기감응을 주는 잘못된 풍수조건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이러한 풍수조건은 후손에게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¹¹⁾

이러한 정자와 주자의 풍수관은 조선 왕조와 사대부들에게도 상당히 받아들여졌다. 류성룡은 고금의 術家의 견해를 모으고 예서의 斂葬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3권으로 엮은 『愼終錄』을 만들기도 했으며¹²⁾ 송시열 역시 “주자가 쓴 『산릉의장』을 보면 주자가 지가술(地家術)에까지 통달하였다”고 하면서 주자의 풍수관이 대부분 수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

이처럼 조선 후기에 음택풍수를 기반으로 매장지를 택하는 장례문화는 사대부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성리학의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풍수지리는 술수와 미신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不可廢, 不可信”이라는 사대부를 비롯한 지배층의 풍수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는 풍수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점차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계층까지 번져나간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왕실은 풍수설을 명분으로 하여 많은 논란을 불식시키면서까지 점차 잦은 遷陵을 진행했고 사대부들 역시 풍수로 인한 移葬을 다수 시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천릉과 이장은 풍수설의 만연과 연관 깊었다. 풍수설이 만연하면서 營葬한 분묘라도 지사가 불길하다고 하면 다시 길지를 찾아 遷葬을 하는 세태가 이를 나타내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조상의 장지를 탓하고 천장하는 풍토가 성행했다. 이러한 천장의 성행은 법전에 항목이 추가될 정도였다. 『경국대전』에 천장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 천장에 관한 항목이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¹⁶⁾

議政을 천장할 때는 葬需와 擔軍을 참작하여 題給하고 예장을 허락하지 않는다.¹⁷⁾

11) 김기덕, 앞의 논문, 205쪽 참조.

12) 류성룡, 『西厓先生文集』, 17권, 序.

“乃輯古今術家之說 及禮文時俗所傳關於斂葬者 間附以所親驗者 釐爲上中下三篇 總名之曰愼終錄”.

13) 송시열, 『송자대전』 15권, 疏筭

“且朱子兼通地家之術 其見於山陵議狀者詳矣 而猶爲棺底築灰之法 今之不用此法而信術人之說者 何異於當日之信臺史而不用朱子議哉”.

14) 세종은 풍수를 회복지설로 일축하면서 풍수에 입각한 왕릉 봉심의 견해를 불신했고(『세종실록』 106권, 26년(1444) 윤7월 8일) 세종대의 중신인 어효첨은 풍수에 대한 불신을 장문의 상소를 통해 드러냈다.(『세종실록』 106권, 26년(1444) 12월 21일)

15) 『승정원일기』, 현종 2년 11월 30일.

“近來士夫, 或於風水之說, 稍有形勢, 則奪人墳山, 恣行不法者, 比比有之, 不可不隨現重治也”.

16) 김경숙, 2002,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2쪽.

17) 『속대전』 예전 상장

“凡議政遷葬時 葬需擔軍 參酌題給 勿許禮葬”.

사족층 사이에는 천장이 성행하면서 『속대전』에서 “천장 때에 장수와 담군의 지급을 허용하라”는 조항이 생기고 『대전통편』에서는 “급조의 한계를 초장의 절반으로 확정하게 하라”는 조항이 생겨났다. 이러한 천장의 성행은 산송의 발생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¹⁸⁾ 천장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분산, 전답, 가옥 등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컸고 이는 산송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 후기에 정착된 종법 질서의 영향으로 인한 門中の墳山 정착화는 또 다른 산송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산림의 사유가 금지되어 있던 조선 시대에 사대부를 비롯한 향촌의 유력가들이 토지를 점유하는 수단으로 분산 수호와 禁葬, 偷葬 등의 방법을 활용하려 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⁹⁾

결과적으로 산송은 조선 후기에 들어 폭넓게 수용된 풍수설의 동기감응론과 그로 인해 성행한 천장의 영향이 컸다. 또 문중의 분산 정착, 산림 소유권에 대한 갈등 심화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유원은 『임하필기』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숙종 24년(1698)에 상이, 사대부들이 풍수(風水)에 미혹되어 천장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하여 특별히 명을 내려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근래의 천장 문제는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다...그러나 두 번 세 번 자주 묘지(墓地)를 옮기는 자들이 있으며, 심한 경우 네 번 다섯 번씩 옮기다가 끝에 가서 다시 구혈(舊穴)로 환편(還遷)하는 일까지 있다. 내가 일찍이 그 폐단을 목격하고 이를 지극히 개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간혹 격쟁(擊錚)한 공사(公事)를 보면 더러 큰 마을의 한가운데를 멋대로 점거한 자들까지도 있는데, 대저 땅은 유한하지만 묘지를 옮기고자 하는 자들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²⁰⁾

이를 통해 숙종대에 이미 천장은 풍수설로 인해 당시 성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풍수설로 인한 천장은 격쟁의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전술하였듯이 천장을 통해 산지를 점거하거나 토지를 광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대부의 풍수설 수용과 산송의 심화는 연관이 깊어 보이는 사회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 산송 갈등의 심화와 그 양상

‘山訟’은 산소, 즉 조상의 매장지에 대한 소송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용어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유교적 장례 풍습, 즉 화장이 아닌 매장이 성행하고 좋

18) 김경숙, 위의 논문, 83쪽.

19)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

20) 이유원, 『임하필기』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천장(遷葬)을 금하다.

은 매장지를 찾는 ‘묘지풍수’가 성행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문제를 뜻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초기에 ‘분수원 산송’(과평 윤씨와 청송 심씨 간의 묘지 분쟁)과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후 점차 늘어나 사족간의 산송은 물론이고 지방 향리, 평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광범하고 빈번하게 벌어진 소송이었다.

그리고 산송은 조상의 분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유교적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매우 중시되는 상장례와 관련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산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靑龍白虎’내의 묘역이 법조항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偷葬·暗葬·勒葬·盜掘 등이 성행하였고 이는 조상의 묘역을 훼손했다는 ‘효’ 문제와 직결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였다.²¹⁾

그 중 투장 문제는 산송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투장의 원인으로는 유교 문화의 보급 및 친족질서의 변화에 따른 부계조상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종족의식의 강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된 것이었다.²²⁾ 실제 15~16세기를 거치며 《주자가례》의 보급에 따른 유교적 상장례가 보급되고 족적질서가 형성된 宗山이 마련되고 墳山이 확대되어 가면서 산송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결과 17~18세기에 사족 간의 산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²³⁾

산송의 원인은 이외에도 산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신분 계층의 변동 등 17~18세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송으로 인해 나타난 빈번한 격쟁과 상언, 묘지 소송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 산송을 통한 향촌사회에서의 권력 투쟁과 경제적 권익에 관한 새로운 인식 등의 사회적 현상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송의 원인과 현상을 보여주는 약간의 사례를 본고에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진주 정씨 정경세 집안의 산송 사례

진주 정씨 가문의 투장사건은 산송문제가 약 150여 년간이나 지속된 장기적인 송사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상주 지역의 대표적 인물인 정경세의 묘지와 관련된 산송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사대부 산송 문제였고 정경세가 송준길의 장인이고 당시의 권력자인 민진원(閔鎭遠) 집안과 그 외손자인 이재(李緯)가 혈연관계를 이유로 산송 문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례이다.²⁴⁾

21) 김도용, 1990, 「조선후기 산송연구」, 『고고역사학지』 5·6합집, 316~317쪽 참조.

22) 김경숙, 앞의 논문, 7쪽.

23) 김경숙, 앞의 논문, 8쪽.

본 논문의 투장 관련 문서 통계에 의하면 소송자 중 91%가 양반 사족이었다.

진주 정씨 집안의 첫 산송은 정민수가 1842년 1월에 妻喪을 치루고 한동안 葬事를 지내지 못하다가 함창관내 西面 鶴岩 後麓에 장사 지낼 때 처음 발생했다. 이 때는 兪甲成의 할아버지 묘소와 李文의 庶母塚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정민수의 妻墓가 자리를 잡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민수는 아들인 정윤우와 손자인 정동규 등 친족과 연명해 자신이 처를 매장한 곳은 5~6백보 떨어져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²⁵⁾ 이 사건은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연명인이 늘어나는 내용의 많은 진정서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870년에는 정경세의 묘지 옆에 무단으로 묘를 만들어 놓는 투장 사건이 발생했다.²⁶⁾ 당시 고문서에 의하면 정경세의 묘는 본래 慶尙道 咸昌 南面 劔湖里에 있었고 정경세가 인현왕후의 외외조부인 관계로 그 묘가 엄격히 수호되었다는 내용과 1869년부터 누군가의 가묘가 생겨나 파 버려야 한다는 골자의 청원서를 정민병 등 82인이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²⁷⁾ 이 상언에서 정민병 등은 과거에 “정조께서 정종로에게 친히 정경세의 제문을 내린 사실이 있었다.”²⁸⁾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정경세의 위상을 드러내 투장한 묘를 속히 파헤쳐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진주 정씨 집안의 산송을 통해 산송의 발생은 묘지와 묘지의 거리로 인한 다툼, 무단 가묘의 형성과 같은 투장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경세가 인현왕후의 외외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많은 친족을 동원해 향촌의 영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 그 해결방법은 官掘, 혹은 관의 명령을 통해 묘를 파헤쳐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리학을 추구하는 조선 사회에서 용납되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굴거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투총자(偷塚者)가 굴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발생해 산송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송사해결이 매우 지체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정경세는 송준길을 사위로 맞았는데 송준길은 인현왕후의 부친인 민진원의 장인이었다. 그래서 정경세는 인현왕후와 혈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당시 산송문제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민진원의 외손자인 당대의 학자인 이재가 형조참관으로서 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학수, 200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전적류』 해제)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고문서집성 8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16쪽.
“...本縣吏兪甲成 松楸之內而 兪吏非墳距 民之新占據 非但坐立俱不見遠 至五六百步”.

26) 이 사건은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전적류』 해제에 의하면 18세기 중반에 처음 함창에 거주하던 권치진 등이 정경세의 묘역에 투장한 데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주원이 주로 산송의 주체가 되어 활동했으며 정종로의 문인들도 산송에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인현왕후의 친족들인 민익수, 민창수, 민형수 등 여흥 민씨의 후원과 인척인 이재, 원경하 등이 산송을 후원하여 산송 해결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 산송은 150년간의 긴 과정 끝에 정의목 대에 와서 종결되었다.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의 책, 231~232쪽.

“我先朝實爲 仁顯聖后之外外祖而 正廟祖親祭文 有若曰...在前在後極其... 四山之內 則雖步 數澗遠...不意昨年秋 有何蔑法之人 潛爲其墳若偷埋之樣...閣下崇賢尚德之政 永有辭於南士矣”.

28) 『정조실록』 45권, 20년(1796년) 8월 13일.

2) 蔡周憲家와 潘師喆家の 산송 사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산송사례로 경상도 함창에 거주하는 蔡周憲家와 潘師喆家 사이에 3년여에 걸쳐 전개된 산송은 산송의 과정과 현상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870년 6월 처음 발생한 이 산송은 채주헌 등 10인이 연명으로 함창관에 等狀을 제출하여 투장을 호소한 데서 시작되었다. 채주헌 집안의 기록에 따르면 반사철은 상주에서 함창으로 이주한 인물로 함창 지역에 새롭게 분산을 확보하고자 투총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송이 발생한지 3년이 되도록 투총의 굴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화하자 채씨는 함창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山下村의 洞民들을 동원하였다. 1872년 8월 南面 池浦里의 동민들이 투총의 독굴을 요청하는 등장을 함창관에 제출하였다. 등장의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村後에 투장한 이후로 식수가 변하고 풍토병이 발생하여 2년 사이에 사망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풍수설에 근거한 내용을 등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해에도 채우헌, 채시룡 등을 중심으로 소민들이 참여한 형태의 독굴 요청 등장은 계속 제출되었고 9월에는 채상구가 중심이 되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議送을 제출하여 소송을 감영까지 확산시켰다. 그 결과 관찰사는 함창관에게 督掘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고 1873년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독굴 요청 결과 官掘의 위험을 느낀 반사철이 직접 스스로 투총을 굴거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다.²⁹⁾

이 사례에서도 산송의 원인은 투장이었고 해결방식은 친족과 촌민을 동원한 지속적인 청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관굴이 산송의 최종 해결책이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투총자가 스스로 굴거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이사항은 등장에 향촌민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그 내용에 있어 풍수설에 입각한 민심의 동요를 적었다는 점이 정경세 집안의 청원 내용과 다른 점이다.

이처럼 사대부간의 산송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산송이 한번 일어나면 조사 후 처리 과정이 복잡했고 원칙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각 관아에 호소하는 청원과 등장, 혹은 격쟁과 상언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산송은 주로 산소가 위치한 龍虎와 養山處의 그림을 통해 투장 여부와 승패를 판단하는데 도면 작성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수령과 향리들과 결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³⁰⁾ 그 결과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져 진행과정이 지루하게 지속되어 소송에 관여한 집안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산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³¹⁾ 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풍수설을 활용한 향촌의 민심을 얻는 작업이 필요해

29) 이상의 사례는 김경숙, 앞의 논문, 109~113쪽을 참조하였다.

30) 정약용, 『목민심서』, <聽訟>.

31) 김도용, 앞의 논문, 317쪽.

졌음을 앞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 후기에 격화된 산송의 발생은 그 원인과 현상에 있어 풍수설과 점차 연관깊어져 가고 있음을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³²⁾

II. 정약용의 풍수관과 『풍수집의』 에 드러난 장례 문제의 인식

1. 정약용의 풍수관

정약용 역시 『목민심서』의 聽訟 하편에서 “묘지 송사는 이제 폐속이 되었고 살상 사건의 절반이 이로 말미암는다”고 언급해 산송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³³⁾ 그렇다면 산송에 대해 정약용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산송의 원인에 대해 주로 당시 사람들의 매장법에 대한 무지와 풍수설의 맹신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는 산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령이 어떤 해결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약용은 풍수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묘역의 경계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문제보다는 풍수설에 현혹되어 길지만을 찾아 헤매는 당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³⁴⁾ 그러면서 당시 산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地師의 술수 때문이며 지사는 곧 葬巫라고 강도높게 비난한다.

살피건대 지사는 중국에서 말하는 葬巫이다. 무릇 장무의 이익은 새로 피터를 잡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 先塋 곁에 비록 남은 혈이 아직 많더라도 꼭 흠을 끄집어내어 불길하다고 말하고 마침내 상주와 함께 외지를 다니며 산을 구하여 새로운 혈을 차지하려 한다. 무릇 새로운 혈은 대개 다른 사람의 땅이니 어찌 쟁송이 없겠는가. 송사가 많은 이유는 모두 지사 때문인 것이다.³⁵⁾

32) 풍수를 이용한 장지 선정은 사대부 계층에게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 결과 사대부 계층은 풍수담론을 이용해 고을에 대한 공간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권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기에 이르렀다.(최원석,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010, 267~268쪽 참조.)

33)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 <聽訟> 하편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毆之殺 半由此起”.

34)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 <聽訟> 하편
“我法葬無次序叢叢相亂而已醫譯算律之士其墳墓皆在東西郊近世始別占遠郊亦俗尙有渝也周時雖有墓地之訟其所爭不過隙地界限或恐他日葬地狹窄而已非如今俗主脈案對青龍白虎之地以吉氣相衝爲憂者也”.

35)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 <聽訟> 하편.

즉, 지사가 말하는 명당이나 길흉의 징조는 오직 새로운 모지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술수에 불과한 것이지 학문적인 원칙이나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새로운 땅을 다투게 되어 분쟁이 생기므로 풍수설과 지사를 산송의 근본적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풍수집의』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풍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³⁶⁾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오학론」에서도 풍수를 학문이 아닌 술수로 분류하고 있다.

청(淸) 나라의 학자 서건학(徐乾學)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葬事)지낼 적에 풍수설(風水說)을 배척하면서 이는 『주역』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풍수설에 미혹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의거 미루어 나간다면, 복서(卜筮)·간상(看相)·성요(星耀)·두수(斗數) 등 술수(術數)로 부연하는 모든 것은 다 혹술(惑術)일 뿐 학문이 아니다.³⁷⁾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례통고』의 저자인 서건학이 풍수설을 배척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으면서 풍수설의 미혹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례통고』는 청대 학자 서건학이 17세기 말에 예학을 고증학적 방법으로 집대성한 책으로 조선에는 1759년에 이미 유행된 상태였다.³⁸⁾ 따라서 정약용은 규장각의 각신으로 재직할 무렵 『독례통고』를 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⁹⁾

그는 『목민심서』의 聽訟 하편에서도 서건학의 『독례통고』에 실린 族葬昭穆圖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매장법에는 풍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⁴⁰⁾ 따라서 정약용은 산송이 격심해지고 사대부들이 분산을 지키거나 광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풍수를 수용하거나 혹은 활용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를 청대의 예학서인 『독례통고』를 통해 확인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약용은 18세기 무렵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한 산송 문제⁴¹⁾가 이러한 풍수에 대한 잘못된 맹신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풍수집의』에서도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모를 장사하는데 풍수설을 믿음에 빠져 남의 산을 침범하고 점유하기에 이른다. 남의 무덤

“續大典曰大村及他人墳山至近地冒占起訟者指示地師刑推懲勸主喪人定配決訟官論罪○按地師中國謂之葬巫凡葬巫之利在於新占故先塋之側雖餘穴尚多必吹毛覓疵言其不吉乃與喪主走外求山圖占新穴凡新穴皆他人之地安得無訟爭訟之繁悉由地師”

36) 『목민심서』는 1818년에 완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풍수집의』를 저술한 1825년보다 7년 앞서므로 시간적으로 저술 이전부터 풍수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3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1권, 오학론 5

“徐乾學舉考 斥風水之說 不可與易 又何惑焉 推是以往 若卜筮看相星耀斗數之等 凡以術數衍者 皆惑也非學也”.

38) 박종진, 앞의 논문, 2010, 484~486쪽 참조..

39) 박종진, 앞의 논문, 2011, 12쪽.

40)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 <聽訟> 하편

“案徐乾學讀禮通考 有族葬昭穆圖 近世名儒 議復族葬之法 寢以成俗 兼又幽克之地 曠野無山 龍虎案對 亦無可憑 故繚垣爲域 昭穆從葬 皆太祖子坐午向 昭穆卯酉相向 無風水之說也”.

41) 산송은 조선 후기의 3대 소송인 노비, 토지 소송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였다.

을 치고 남의 조상의 해골을 버리니 원망이 이어져 송사가 맺어진다.⁴²⁾

즉 풍수설이 유행하면서 남의 산과 토지를 침범하고 점유하여 원망이 이어져 산송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산송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견해로 그의 풍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산송과도 연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풍수론에서 “풍수의 이치는 꼭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선비가 되기도 어렵다”⁴³⁾고 비판했는데 이는 당시 풍수가 선비들에게 어느 정도 유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면서 그가 풍수설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황을 대변한다.

이처럼 정약용은 풍수설이 널리 퍼지고 유행하는 당시의 정황이 산송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심화한다는 데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상에 대한 효도를 명분으로 명당을 찾는데 힘을 기울이고 그로 인해 남의 조상의 선영을 파헤쳐 결국 산송에 이르는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그 원인과 증상을 풍수설의 유행이라 판단하고 성리학적인 장례문화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풍수집의』를 저술하기에 이른 것이라 추측된다.

2. 『풍수집의』의 내용 분석

『풍수집의』는 청대 학자인 서건학이 지은 『독례통고』 중 권82~권94의 「葬考」 중 권83 「葬考2」를 추출해 본문으로 삼고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주석으로 다는 형태로 구성된 책이다. 본래 『독례통고』는 청나라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으로서 방대한 규모와 박학적 지향이 장점인 책이다.⁴⁴⁾ 따라서 정약용은 포괄적인 예학서인 『독례통고』에 드러난 선대 유학자의 葬論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의 잘못된 매장문화와 풍습을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풍수집의』를 저술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그는 전술했듯이 『독례통고』의 저자인 서건학이 풍수설을 비롯한 각종 술수학과 미신을 합리주의적 자세로 배격한 태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승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⁴⁵⁾ 또한 『독례통고』에 나타난 선대 유학자들의 장론을 먼저 보여주고 이를 통해 현재의 장례 풍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증학적 방식을 통해 당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유의 문제해결 방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풍수집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그는

42) 정약용, 『풍수집의』, 鄭漢奉徑地粹言

“葬親者 溺信風水 至侵占他山 伐人塚 棄人祖父母骸骨 怨連訟結”.

43)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1권, 풍수론5

“有爲曠達之論者曰 風水之理 日有則不可 日無亦不可 嗚呼 折訟如此 其亦難乎其爲士矣”.

44) 박종천, 앞의 논문, 2011, 21~22쪽.

45) 박종천, 앞의 논문, 2011, 31쪽.

당나라 사람 呂才부터 청나라 사람 顧湄까지 26명의 선대 유학자들의 장론을 소개하고 그 뒤에 자신의 풍수에 대한 견해를 맨 뒤에 ‘俟菴風水論’이라고 붙임으로써 자신의 풍수설에 대한 견해를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26명의 유학자 중 대표적 인물인 사마광, 정이천, 주희 등의 장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⁴⁶⁾ 그에 관한 정약용의 견해를 통해 성리학에서 드러내는 풍수설에 대한 입장과 장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정약용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집의』에 등장하는 26인의 인물들은 대표적인 先儒, 특히 조선조 사대부들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여재, 사마광, 정이천, 장횡거, 주자, 장구성, 진덕수, 나대경, 옹봉래, 오초려, 구준, 방효유 등의 글들이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마광, 정이천, 장횡거, 주희의 풍수관과 장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1) 사마광, 정이천, 장횡거, 주희의 풍수관과 葬論

먼저 사마광은 요즘 사람들이 음양과 금기로 인해 날짜와 장지를 지나치게 따진다고 비판하면서 풍수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葬師(地師를 뜻함)를 동원해 길지와 길일을 따지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길한 땅과 시간을 점쳐주는 이들은 오직 돈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형이 음양술의 허구성을 비웃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는 풍수설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장례 풍습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족인이 말하길 근처에 장생이란 자가 있는데 좋은 지사이다. 여러 현이 모두 그를 쓴다. 형이 곧 장생을 불러 2만전을 허락하였다. 장생은 시골의 농부로 대대로 지사를 했는데 농부들의 장사를 했는데 소득이 불과 천전이 안 되었다.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형이 말하길 너는 능히 나의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 나는 너로 하여금 장사에 나의 말을 쓰지 않으면 장차 다른 지사를 구할 것이다. 장생이 말하길 오직 명하시면 듣겠습니다. 이에 형이 자기의 뜻으로 세월과 일시 및 땅의 깊고 낮음과 넓고 좁음을 스스로 처리하였다.⁴⁷⁾

이처럼 사마광은 일찍이 음양가들은 많은 사람들 미혹에 빠뜨리는 세상의 근심거리라고 혹평하면서⁴⁸⁾ 음양에 입각한 풍수설을 비판하고 일정한 날짜와 장지로 장례가 족할 수 있

46) 『풍수집의』의 선유들의 장론에 대한 연구는 이하,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에 대략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되 대체로 원문을 참고하여 내용을 본고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47) 정약용, 『풍수집의』, 司馬光葬論

“族人曰 近邨 有張生者 良師也 數縣皆用之 兄乃召張生 許以錢二萬 張生 野夫也 世爲葬師 爲野人葬 所得不過千錢 聞之大喜 兄曰 汝能用吾言 吾俾爾葬 不用吾言 將求他師 張師曰 惟命是聽 於是 兄 自以己意 處歲月日時及壙之淺深廣狹”.

48) 정약용, 『풍수집의』, 司馬光葬論

“吾嘗疾陰陽家立邪說以惑衆爲世患 於喪家尤甚 頃爲諫官 嘗奏乞禁天下葬書”.

다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편 신유학의 鼻祖로 평가받는 정이천은 전술했듯이 택지를 정할 때 땅의 미악을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음을 그의 장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이천 역시 땅 색의 빛과 윤기, 초목의 무성은 증험에 불과하므로 땅의 아름다움을 볼 뿐이지 음양가의 화복을 보기 위함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⁴⁹⁾ 그러면서 택지의 방위로 미혹되고 날의 길흉을 결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지리서는 가장 의리가 없다고 해 자신은 풍수의 화복설에 미혹되지 않았음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⁵⁰⁾ 즉, 장사를 치를 때 자연환경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자손의 화복을 위해 날짜와 장지를 점치는 당시의 음양가적 풍수설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⁵¹⁾ 장횡거 역시 매장할 때 풍수와 산강이 있어야 하지만 의리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풍수설의 화복설을 배격하고 있다.⁵²⁾

마지막으로 주희는 장론에서 당시 풍수가들이 말하는 바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풍수는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된 마음으로 편안한 곳에 매장하고 싶은 바람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大抵擇地而葬 人情也”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좋은 땅을 골라 부모를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므로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희 역시 부귀를 구하기 위해 좋은 장지와 날짜를 잡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용의 차원에서 주자는 정이천이 말한 인정에 의한 ‘바람이 순하고 땅이 두터운 곳(風順地厚之處)’을 알지 못해도 옳지 않은 것이고 알고도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⁵³⁾

이들의 풍수론과 매장관을 정리하면 대체로 당시의 음양가의 명당과 길일을 좇는 풍속을 비판하되 땅의 미악을 판단하고 좋은 장지에 부모를 매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손이 부모의 장지를 통해 복을 받으려고 정작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데 이르며 험잡꾼에 불과한 地師의 말에 현혹되어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당대의 풍속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9) 정약용, 『풍수집의』, 程伊川葬論

“卜其宅兆 卜其地之美惡也 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

“然則曷爲地之美者 土色之光潤 草木之茂盛 乃其驗也”.

50) 정약용, 『풍수집의』, 程伊川葬論

“惑以擇地之方位 決日之吉凶 不亦泥乎”

“世間術數多 惟地理之書最無義理 祖父葬時 亦用地理人 尊長皆信 唯先兄與某不然”.

51) 이화, 앞의 논문, 87쪽.

52) 정약용, 『풍수집의』, 張橫渠葬論

“葬法 有風水山岡 此全無義理”.

53) 이화, 앞의 논문, 89~90쪽.

2) 정약용의 풍수론

정약용의 풍수론 역시 선유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특히 여재의 장론에 주를 붙이면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장례의 기간과 택지의 본 뜻이 풍수설의 길흉설과 다르고 본의가 다르다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그의 견해는 7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장사의 기한은 풍수서인 葬書에서 말하는 예와 다르고 예기에서 장사의 기한을 정한 이유와 달라 습속을 해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풍수서에서 말하는 장사의 때와 길흉 관계는 전혀 일치하지 않고, 셋째는 장사지내는 때는 고례에 본래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다. 넷째로는 묘의 지형은 편안함이 중요하며 길흉과 자손의 부귀와는 관계가 없다고 논증했다. 여섯 번째로 관직이나 녹봉의 차이는 장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풍수서인 장서의 길흉으로 인해 습속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⁵⁴⁾ 대체로 정약용은 장례의 기한을 점치고 장지를 후손의 복을 위해 정하는 습속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장례의 기한은 조문을 하기 위한 기간이란 본 뜻을 밝히고⁵⁵⁾ 장지는 조상의 체백을 편안히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⁵⁶⁾

사마광의 장론에 대해서 정약용은 “우리 동쪽은 비록 3개월 내에 장사해도 이를 ‘權窆’ (좋은 장지를 구할 때까지 가매장하는 것)라 하고 길지를 구하면서 遷葬을 도모한다고 당시의 습속을 비판하고 있다.⁵⁷⁾ 즉, 길지와 길일을 찾기 위해 장례 기일을 미루고 가매장을 하거나 천장하는 습속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이천과 주희의 장론에 대해서는 정이천과 주희의 장론은 모두 人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⁸⁾ 즉, 정이천과 주희가 풍수설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땅의 형세와 동기감응론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연환경적으로 좋은 장지와 좋은 날짜에 장사를 지내고자 하는 ‘인정’과 관련 있는 것이지 풍수설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풍수관은 『풍수집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俟菴風水論”에서 더욱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의 풍수관은 풍수설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당시의 장례 풍속

54) 정약용, 『풍수집의』, 呂才葬書

“此則貴賤不同 禮亦異數 欲使同盟同軌 赴甲有期 量事制宜 遂爲常式 法旣一定 不得違之 故先期而葬 謂之不懷 後期而不葬 議之殆禮 此則葬有定期 不擇年月 一也... 葬書敗俗 一至於斯 其義七也”.

55) 정약용, 『풍수집의』, 呂才葬書

“此則貴賤不同 禮亦異數 欲使同盟同軌 赴甲有期 量事制宜 遂爲常式 法旣一定 不得違之”.

56) 정약용, 『풍수집의』, 呂才葬書

“上利下利 蔑爾不論 大墓小墓 其義安在 及其子孫 富貴不絕”.

57) 정약용, 『풍수집의』, 司馬光葬論

“吾東雖三月而葬 名之曰權窆 更求吉地 以圖遷葬”.

58) 정약용, 『풍수집의』, 朱晦菴葬說

“大抵擇地而葬 人情也 今但命之曰山水環合”.

에 대한 비판과 사회문제인 산송과 효도에 대한 관념을 비판하고 있어 흥미롭다.⁵⁹⁾

먼저 선행 연구자인 이화가 밝혔듯이 정약용의 풍수관은 “非禮, 非孝子之情”으로 요약할 수 있다.⁶⁰⁾ 이는 당시의 장례 풍속이 예와 효도의 관념에 어긋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우선 지금의 장례 풍속은 부모를 매장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으로 고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효경』의 “옛 사람은 그 宅兆를 점쳤다”는 구절을 인용해 예를 합리화했다고 비판하였다.⁶¹⁾ 즉, 『주례』의 昭穆法과 周公의 족장법으로 장사를 지내면 충분한데 왜 길지를 구하는지를 물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예의 본질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효도를 빙자해 풍수설에 입각한 잘못된 장례 풍속을 지키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정약용의 효자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문의 증흥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장례와 효자 선정의 풍속은 동일한 맥락에서 정약용에게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런데 감히 탄 뜻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 효자란 사람들은 **부모의 죽음을 이용하여 세상을 진동시킬 명예를 도둑질하고 있으니**,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런데 저 효자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째서 기필코 평·잉어·사슴·자라·눈 속의 죽순만을 즐겨 찾는단 말인가. 또 호승(胡僧)이나 우객(羽客 도사(道士))처럼 용(龍)이 내려오고 호랑이가 호위하여야만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야말로 부모를 빙자하여 명예를 훔쳐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간사한 말을 꾸며 임금을 속이는 자들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⁶²⁾

이처럼 <효도론>에서 정약용은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과장된 행위를 꾸며내 자신과 집안의 영달을 꾀하려는 당시 효자 선정의 폐해를 논술하면서 잘못된 효도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례 풍습에서도 부모의 상을 슬퍼하고 그 시신을 편안하고 좋은 곳에 정성스럽게 매장하려고 명당과 길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장례를 통해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꾀하려고 하는 전도가 뒤바뀐 당시 사람들의 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효도론과 풍수론에 보이는 정약용의 비판 대상은 효행과 장례에 있어 당대인들이

59) 정약용, 『풍수집의』, 鄭漢奉徑地粹言

“葬親者 溺信風水 至侵占他山 伐人塚 棄人祖父母骸骨 怨連訟結 抵死求勝 至於傾家敗業 而地終不可得 福應尙遠 禍應至近 何其愚一至此”.

60) 이화, 앞의 논문, 93쪽.

61) 정약용, 『풍수집의』, 呂才葬書

“今人多引孝經 謂古人亦卜其宅兆 蓋未深考乎古禮也”.

62)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1권, <논>, 효자론

晉文公之言曰父死之謂何 或敢有他志 彼或乘此之時 而因以盜其震世之名 尙亦何哉 且人之嗜好不同也 有嗜羊棗者 有嗜昌歎者 有嗜芡者 嗜蜜者 嗜芋者 人之嗜好不同也 何孝子之父若母 必唯雉鯉 鱸 鱉 雪中之笋 是嗜是索耶 又必降龍伏虎 若胡僧羽客之爲 然後方可謂之孝子乎 是其藉父母以沽名逃役 飾奸言以欺君者也 不可不察.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할 효심은 사라지고 효심을 나타내는 행위에 두는 관념이었다. 그는 <효도론>에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효행을 드러내 자랑하고 이를 알면서도 효행이라고 떠받들어주는 당시 시속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풍수의 음양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돈을 낭비하고 산송에 휘말리는 행태와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정약용은 ‘사암풍수론’에서 그의 이러한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먼저 조선 후기 당시에 풍수를 신앙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예와 효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풍수설의 허구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⁶³⁾ 즉, 지사들이 말하는 길지에 조상의 몸을 묻어 지하에 남은 조상의 혼백을 통해 자손의 복록생육이 번창하고 넘친다면 이런 땅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터인데 왜 지사 스스로 취하지 않고 卿相之門으로 달려가느냐는 것이다.⁶⁴⁾

또 당시 지사들이 남의 집에 족보를 보고 그 산소의 위치와 분묘가 위치한 산지의 형태를 보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 산소를 옮기게 하거나 장지를 불합리하게 선택하게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믿는 당시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즉, 본래 장지를 점치고 길일을 바라는 것은 『효경』에서 말한 “자리의 징조를 점쳐서 편안히 두는 것”에 입각한 것인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자리를 점치는 것에 효심은 사라지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이 부귀해지고 영달하려는 사욕에서 우러나오게 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법에 대한 고민 없이 체면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당시의 풍습을 활용해 자신의 집안을 높이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산송을 벌이는 사족층과 풍수설을 맹신하고 이에 경도되는 일반 백성들의 잘못된 장례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정약용이 『풍수집의』를 저술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살펴본 것처럼 정약용은 조선후기에 성리학적 종법질서에 편입해 폭넓게 수용되어 산송과 천장 등의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 풍수지리설의 묘지풍수에 입각한 장례 풍속을 비판

63) 이화, 앞의 논문, 94쪽.

64) 정약용, 『풍수집의』, 사암풍수론

“地師既得此巨寶 胡爲不自私以陰葬其父母 顧乃趨而獻之於卿相之門也”.

하고 성리학적 예학에 입각한 장례 풍속을 밝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예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건학의 『독례통고』를 저본으로 하여 선유 26인의 葬論과 자신의 견해를 담은 『풍수집의』를 저술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고증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올바른 장례 풍속을 확립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당시 풍수설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1차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미신적인 음양가에 경도된 풍수설을 명분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사족들과 일반인을 속이는 지시들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당시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된 산송갈등과 천장 문제의 원인이었고 사대부와 경제적으로 성장한 향임과 향리 등은 풍수설을 이용해 집안의 체면과 경제적 이권을 노리는 산송을 지루하게 진행했다.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듯 조선 후기의 산송은 풍수설에 입각한 명당과 길지로 인한 분쟁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기득권과 경제적 요인이 내재된 권력지향적인 투쟁이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조선후기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복잡하게 포함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정약용과 같은 지식인은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풍수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효도 관념에 대한 본말 전도에 대해 개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증학적 방식을 통해 예를 회복하려 한 시도인 『풍수집의』와 같은 저서를 지었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보이면서 당시 성리학적 부계 질서와 효도관념에 편승하여 장례 문화에 만연해있던 풍수설 중 미신적인 부분인 음택풍수와 동기감응설을 학문적으로 고증하여 이것이 미신이며 흑술임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또 장례에서 효의 본질인 부모의 몸과 영혼을 편안히 하고 그 슬픔을 표현한다는 기본 정신이 퇴색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효경』의 기본정신과 『주례』의 장례 문화로 돌아갈 것을 기원했다는 점을 『풍수집의』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산송과 천장 등 조선후기의 장례 풍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또한 요망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속대전』, 『경국대전』, 『二程集』, 『西厓先生文集』, 『송자대전』, 『임하필기』, 『목민심서』, 『다산시문집』 『풍수집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고문서집성 8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규영 편, 1984, 『사암선생연보』, 정문사.
- 김학수, 200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전적류』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권중, 1991, 「茶山禮學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천, 2011, 「다산 정약용의 『讀禮通考』 研究 初探」, 『한국실학연구』 21.
- 박종천, 2010, 「朝鮮 後期 『讀禮通考』 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20.
- 이화, 2005,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덕, 2011, 「조선의 매장문화와 풍수사상」, 『역사학연구』 44.
- 신재훈, 2011, 「조선 전기 천릉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
- 김도용, 1990, 「조선후기 산송연구」, 『고고역사학지』 5·6합집.
- 최원석, 2010,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